

2022 싱가포르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 비즈니스 환경 분석 · 진출전략

목 차

2022 싱가포르 진출전략

C o n t e n t s

I.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2
1. 개요	2
가. 시장전망	2
나. 주요 경제지표	2
2. '22년 주요 이슈 및 전망	3
가. 싱가포르 '위드코로나'와 함께 경제성장	3
나. 지속 가능한 미래	4
다. 디지털 경제	5
라. 기타	6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8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8
가. 정치 환경	8
나. 경제 환경	8
다. 산업 환경	10
라. 정책·규제 환경	11
2. 시장분석	12
가.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12
나. 수출	13
다. 투자	16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의제	19
가. 교역	19
나. 투자	21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22
III. 진출전략	24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24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5
3. 한-싱가포르 경험을 통한 진출전략	30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34
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36
첨부 3. '22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37
첨부 4. '22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전시회 캘린더	38
첨부 5.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 인수방침	38



I. 시장 평가 및 주요이슈



I

시장 평가 및 주요이슈

1. 개요

가. 시장전망

■ 코로나 여파에도 싱가포르 경제전망 긍정적 신호

- 코로나19 이후 침체되었던 싱가포르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며 '21년 연중 경제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임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 '21년 GDP가 전년대비 총 6.0~7.0%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아시아개발은행(ADB), 동남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싱가포르에 대한 '21년 경제전망치를 기존 6%에서 7%로 상향 조정('21.9월)
- '22년에는 주요 산업 부문의 지속 성장세와 높은 백신접종률 그리고 점진적인 방역조치 완화 등에 따라 경제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됨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구	백만 명	5.50	5.53	5.60	5.61	5.63	5.70	5.69	5.71	5.74
명목 GDP	십억 달러	314.86	308.00	318.75	343.33	375.96	374.39	339.98	378.65	397.00
1인당 명목GDP	달러	57,565	55,646	56,846	61,175	66,676	65,641	59,795	66,263	69,129
실질성장률	%	3.9	3.0	3.3	4.5	3.5	1.3	-5.4	6.0	3.2
실업률	%	2.0	1.9	2.1	2.2	2.1	2.3	3.0	2.7	2.5
소비자물가상승률	%	1.0	-0.5	-0.5	0.6	0.4	0.6	-0.2	1.6	1.5
재정수지(GDP대비)	%	18.0	18.7	17.6	17.3	15.4	14.3	17.6	15.9	15.7
총수출	백만 달러	410,150	346,797	329,860	373,355	412,813	390,652	368,096	181,492a	N/A
(對韓 수출)	"	16,709	14,503	14,511	16,793	15,679	15,213	16,706	7,935a	N/A
총수입	"	366,371	296,876	282,995	327,707	370,650	359,180	329,064	158,996a	N/A
(對韓 수입)	"	21,608	18,197	17,001	16,166	14,198	13,728	15,573	7,723a	N/A
무역수지	백만 달러	43,779	49,921	46,865	45,648	42,163	31,472	39,032	22,496a	N/A
경상수지	"	56,519	57,574	56,012	59,282	57,933	53,398	59,784	60,123	62,315
환율(연평균)	한자국/US\$	1.27	1.37	1.38	1.38	1.35	1.36	1.38	-	N/A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6,512	7,263	8,397	8,842	8,658	9,347	-	-	N/A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11,123	12,680	13,524	15,673	17,322	19,123	-	-	N/A

주: *2021년은 a는 5월기준 누계, 나머지는 추정치, 2022년은 전망치 기입
 자료: IMF, 무역협회(KITA)

2. '22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 '22년에는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경 재개방 등 '뉴노멀'을 향한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예상됨. 또한, 국가차원의 녹색성장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 탄소저감과 친환경 도시설계를 통한 지속가능성을 추구할 것으로 보임. 산업부문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디지털 금융을 통해 세계를 연결하는 등 디지털 경제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됨.

가. 싱가포르 '위드 코로나'와 함께 경제성장

■ 코로나19 엔데믹 실현 계획 수립

- 높은 백신 접종률 및 국가 주도의 방역체계 기반으로 코로나19를 더 이상 '펜데믹'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엔데믹'으로 접근하며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 싱가포르 인구의 84%가 백신접종 완료(2차접종)하며 높은 접종률을 기록함('21.10.14기준)
 - 싱가포르 정부, 코로나19 엔데믹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21.8)하며 사회전반에서 단계적 접근방식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됨
- * (1단계) Preparatory Stage ⇨ (2단계) Transition Stage A ⇨ (3단계) Transition Stage B ⇨ (4단계) Covid19 Resilient Nation

■ 점진적인 경제회복을 통한 경제성장 도모

- 싱가포르 '21년 경제성장 조짐에 이어 '22년 경제상황 긍정적 신호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등 경기부양책을 제시한 바 있어, 경기회복에 점진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 ('21년 재정투입 사례) 코로나19 피해경감 패키지예산 S\$110억 편성('21.2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영향을 받은 계층 대상 S\$20억 추가배정('21.7월) 등

■ 국경 재개방 확대

- 출입국 경로중 하나인 VTL(Vaccinated Travel Lane) 운영 확대
 - '21년 11개 국가를 대상으로 VTL을 적용하며 국경을 시범적으로 재개방('21.10월 발표)
 - VTL 적용대상 국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22년에도 지속적인 국경 개방이 기대되며 이로 인해 관광 및 비즈니스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 * 싱가포르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국가별 카테고리(카테고리 1~4)를 나누어 출입국 기준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국조건 등이 적용됨('21.10월기준)

나. 지속 가능한 미래

■ 녹색 성장을 위한 ‘SG Green Plan 2030’ 추진

- 정부주도의 ‘SG Green Plan 2030’을 기반으로 녹색성장 추진 기조가 강화될 전망
 - 이는, 대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며 총 6개 분야로 나누어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함

〈SG Green Plan 주요내용(‘21.09 기준)〉

세부목표	주요내용
Green Government	• 공공부문 탄소배출 절감 • 사회구성원이 지속가능성 노력에 참여하도록 장려
City in Nature	• 공원 부지 확대 • 1백만 그루 이상 나무 심기, 2030년까지 1000ha 녹지 신규조성 등
Energy Reset	•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 • 친환경 빌딩 전환 등
Green Economy	•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도입 • 탄소서비스 허브로서 녹색금융 확대 등
Resilient Future	• 식량안보를 위해 2030년까지 자급 식료품 비율 30% 확대 • 해수면 상승 위협 대응을 위한 해안선 관리
Sustainable Living	• 2030년까지 싱가포르 내 전체 학교의 최소 20% 탄소중립화 • 쓰레기 절감 등

자료: SG Greenplan(싱가포르 정부) 발표자료 바탕으로 무역관 작성

■ ‘탄소 순배출 제로’를 위한 글로벌 경쟁에 합류

- 탄소저감 실현을 위한 계획수립과 민-관 공동 노력
 - 싱가포르 통화청(MAS), 금융업계와 협력하여 녹색 금융 생태계 지원을 위해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하는 ‘Project Greenprint’ 프로젝트를 출범
 - * Project Greenprint : 녹색 프로젝트를 위해 자본을 동원하고, 배출량 감소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프로젝트의 저감 노력 결과를 정량화하여 관리
 - 탄소배출권 구매 플랫폼 등을 제공하는 합작투자회사 CIX(Climate Impact X)를 중심으로 싱가포르 기반의 글로벌 탄소시장 생태계 조성 기대
 - 2030년까지 센토사섬 탄소 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섬 내의 모든 대중교통을 2025년까지 전기화하는 등의 전략을 발표함

다. 디지털 경제

■ 민-관 협력으로 산업의 디지털화 추진

- 싱가포르 기업청(ESG), Industry Transformation Map(ITM 2025)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체계 강화
 - 기존 23개 산업 분야의 디지털화 로드맵인 ITMs 새롭게 개편
 - 새로운 ITM 2025는 일자리 창출 및 디지털 기술 향상, 신규 사업기회 포착, 연구개발 등을 통해 비즈니스 솔루션 및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
 - ‘정부기관-산업계’ 간 협력하여 ‘Industry Digital Plan(IDP)’ 가동
 - ‘SMEs Go Digital’사업(‘17.04)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IDP는 싱가포르 기업청(ESG),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음
 - 산업별 파트너 단체와 함께 구축하여 산업별로 기업이 진행할 수 있는 디지털 로드맵 제공을 목표로 함
- * SMEs Go Digital :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구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전자결제 플랫폼 확장

- 싱가포르 전자결제시스템 성장 추세
 -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결제시스템 중 하나인 ‘Paynow’를 통한 거래가 ‘20년에 전년대비 2배 증가한 220억 달러에 달했으며, ‘21년에도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자결제 플랫폼의 성장세가 기대됨
 - 국경 간 경계를 넘는 실시간 결제 시스템 도입
 -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결제시스템인 Paynow를 각각 말레이시아 BNM(Bank Negara Malaysia)의 DuitNow, 인도중앙은행의 결제시스템 UPI(Unified Payments Interface)와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함
- * 말레이시아 Duitnow(‘22.Q4~), 인도 UPI(‘22.07~)

라. 기타

■ “Manufacturing 2030” 수립으로 제조업 성장 기대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 제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발표
 - 제조업은 싱가포르 경제에서 약 20%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제조업을 50% 성장시키는 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되었음
 - 동 계획은, ▲최고의 글로벌 기업 유치, ▲첨단 제조분야에서의 규모 역량 강화를 통한 더 나은 일자리 제공, ▲산학협력 등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함

■ 미래 식량 안보 확보 노력

- 싱가포르 식품청(Singapore Food Agency, SFA), 농식품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착수
 -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생산성 및 자원 효율성이 높은 농식품 클러스터(약 390ha 규모) 조성을 추진 중임을 '20년에 발표하였으며, 2~3년의 협의과정을 거친 뒤 개발을 시작할 예정
 - 첨단 농업 시스템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유시설 개발 등 검토 예정
- ‘30 by 30’ 목표 달성을 위한 현지 식량 생산력 확대
 - * 30 by 30 : 싱가포르 정부에서 2019년 발표한 현지 식량 생산 확대 계획으로, 2030년까지 국내 영양 요구량의 30%를 충족하고자 하는 목표

■ 상품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적용대상 확대 검토

- 싱가포르 재무부(MOF), 저가수입품 및 수입된 비(非)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B2C (Business-to Consumer)를 GST 대상으로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
 - 싱가포르 정부는 현재 7%인 상품서비스세(GST)를 '25년까지 9%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21.10월기준)
 - 단, 법안이 채택될 경우 해당 GST는 2023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 상품 및 서비스 해외 공급업체도 현지 공급업체와 동일한 GST 대우를 받도록 검토 중인 것으로 밝힘
 - * 서비스 및 B2C 수입 디지털 서비스 분야는 '20년부터 GST 대상으로 발효되었음

Ⅱ. 비즈니스 환경분석



II

비즈니스 환경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 안정적인 정치적 환경을 갖춘 싱가포르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서비스 및 제조분야를 확장하며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완화하며 국경을 재개방하고 있으며 자국민 고용기회 확대와 자국 내 생산력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하는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가. 정치 환경

■ 안정적인 정치환경

-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 PAP) 집권 유지
 - '20년 선거결과, PAP가 전체 93석 중 83석을 차지하여 싱가포르 차기 정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게 되었음
 - 단, PAP가 승리를 거두었으나 지난 '15년 총선 때의 압도적인 승리(69.9%)에 비해 '20년에는 그에 비해 지지율(61.2%)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싱가포르의 대통령 임기는 6년으로, 차기 대선은 2023년으로 예상되어 '22년에도 안정적인 정치환경이 유지될 것으로 보임
- * 지난 대선은 2017년 09월에 이루어졌으며 인민행동당(PAP) 소속의 할리마 야콥이 당선되었음

나. 경제 환경

■ 싱가포르 '21년 경제지표 연중 계속하여 긍정적 성과 예상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 2021년 경제성장률 6%~7%로 상향 조정('21.08)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년도에는 △5.4%의 경기위축을 보였으나 정부의 경기부양책, 국경 재개방, 전년대비 거저효과의 영향으로 '21년 상반기 경제성장률(GDP)이 전년 동기 대비 7.7% 성장하면서 긍정적인 경제성장이 전망됨
- 소비자물가지수(CPI) 완만한 상승세 예상
 - 싱가포르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는 '21년 8월 누적기준으로 전년 동기('20.01-'20.08) 대비 1.8%, 전년 동월('20.08) 대비 2.4% 상승
 - CPI는 교통, 가정용 내구재 및 서비스, 식품 순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3%, 1.4%, 1.2%

상승했으며 의류 및 신발($\Delta 5.7\%$), 잡화 및 서비스($\Delta 0.7\%$), 통신기기($\Delta 0.1\%$)에 한하여 하락세를 보였음('21년 8월 누적기준)

■ '22년 완만한 속도로 경제성장 계속될 것으로 전망

- 아시아개발은행(ADB), 동남아시아 지역 중 싱가포르 대상으로 유일하게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하여 발표('21.9)
 - 높은 백신접종률, 서비스 및 제조분야의 확장 등으로 싱가포르 '21년 경제전망치를 상향조정 ($6.0\% \rightarrow 6.5\%$)하고 '22년 경제성장률을 4.1%로 전망함
- 주요 산업별 경기회복 동향
 - 반도체 및 관련 장비에 대한 글로벌 수요증가로 제조부문의 확장이 지속되어 '21년 2분기에 전년 동분기 대비 17.7% 성장하였음
 - 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되었던 건설활동이 재개되면서 건설부문의 성장도 나타남
 - 소매, 요식업, 숙박업과 같은 서비스부문도 전년도 이동제한에 대한 기저효과로 높은 성장을 보였음

〈 싱가포르 산업별 경제성장률 (전년동기비, 단위: %) 〉

구분	2020년				2021년	
	2분기	3분기	4분기	전체	1분기	2분기
상품제조산업	-10.0	1.1	3.9	0.3	6.0	21.9
제조업(Manufacturing)	-0.4	11.0	10.3	7.3	11.4	17.7
건설업(Construction)	-65.6	-52.5	-4.7	-35.9	-23.2	106.2
서비스산업	-12.7	-8.3	-4.7	-6.9	-0.3	10.3
도매업(Wholesale Trade)	-3.0	-5.0	1.8	-2.4	3.5	2.9
소매업(Retail Trade)	-41.3	-8.6	-4.7	-16.0	1.6	50.7
운송저장업(Transportation&Storage)	-37.5	-29.0	-27.4	-25.4	-15.8	20.9
숙박업(Accommodation)	-35.5	-20.5	-19.7	-28.7	16.3	13.2
요식업(F&B Services)	-45.9	-24.1	-19.0	-25.1	-9.2	36.7
정보통신업(I&C)	-0.8	1.4	2.6	2.1	6.8	9.6
금융보험업(Finance&Insurance)	3.1	4.2	4.9	5.0	5.7	9.1
부동산(Real Estate)	-26.4	-17.7	-10.8	-14.2	-3.1	25.8
전문서비스업(Professional Services)	-16.8	-10.7	-7.5	-9.7	-4.5	9.4
행정지원서비스업(Admin&support)	-20.7	-19.4	-14.9	-15.1	-15.1	-1.3
기타서비스업(Others)	-18.0	-8.7	-5.7	-8.9	0.5	15.8
전체	-13.3	-5.8	-2.4	-5.4	1.5	14.7

주: 전년대비, 2021년 10월 기준 최신자료
자료: 싱가포르 MTI

다. 산업 환경

■ 제조업

- 2021년 싱가포르 경제성장의 주요 견인 역할
 - 제조업 부문이 '21년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1%, 17.7% 성장
 - 싱가포르 제조업생산지수(Purchasing Manager's Index, PMI), '21년 7월 51.0으로 코로나19 이후 최고점을 보였으며 '21년 9월 50.8을 기록하며 더디지만 계속하여 확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 정부차원의 제조업 육성 정책에 따른 향후 성장 기대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MTI), 지난 10년간 제조업 성장 속도와 같이 향후 10년 동안의 제조업 성장 목표(50% 성장)를 발표하며 엔지니어링 및 첨단제조 부문에서의 '혁신'을 강조

■ 서비스업

- 싱가포르 서비스 부문 성장 기대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 분석에 따르면, 서비스 생산 산업(Service producing industries)은 '21년 2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10% 성장을 기록하며 '행정 및 지원 서비스' 부문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부문이 성장하였음
- 디지털화 촉진 계획에 따른 정보통신업 성장
 - ICT 혁신 기술 및 솔루션을 활용한 스마트 국가(Smart Nation)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디지털 사회 구축을 위한 디지털 정부 청사진(Digital Government Blueprint, DGB) 수립
 - '21년 ICT 조달에 '20년 대비 10% 증가한 최대 38억 싱가포르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며 정부 디지털 서비스 혁신 및 인프라 재설계등에 사용할 계획
 - 싱가포르 정보통신업은 디지털 솔루션과 서비스에 대한 기업 및 소비자 수요에 의해 '21년 2분기 전년 동기대비 9.6% 상승함

라. 정책·규제 환경

■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국경 재개방

- 코로나19 펜데믹 영향으로 시행했던 국경 간 이동 제한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중
 - VTL(Vaccinated Travel Lane) 적용국가 확대하여 백신 접종 완료 시 PCR검사 등 요건을 충족하면 격리기간 없이 싱가포르 출입국이 가능하도록 함
 - '21년 11월 15일부터 VTL 적용국가로 한국을 포함하는 것으로 발표함

■ 자국민 고용 우선 정책 유지

- 싱가포르 정부, 현지 노동시장에서 외국인과의 인재 경쟁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 변경
 - 자국민 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성장 인센티브 제도(Jobs Growth Incentive, JGI) 기간 연장 (~'22.03)
 - 코로나19 타격 산업군의 현지 인력 고용 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JSS제도 운영
 - * JSS : 코로나19 피해가 큰 산업군(식음료, 체육시설, 소매업, 관광업 등)을 대상으로 싱가포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월 임금의 25~75% 가량을 지원하는 제도
- 외국인 대상 엄격한 근로허용 기준 도입
 -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부양가족비자(Dependant Pass, DP) 소지자의 근무허가서 발급을 정지하고 취업비자(EP, SP, WP)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근무 가능하도록 조건 강화('21.5월부)
 - *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 대상 취업비자(EP, SP, WP)의 발급조건을 '20년부터 일부 강화하였음

■ 친환경을 위한 정책 도입

- 탄소저감을 위해 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량 도입 확대
 - 2040년까지 내연기관 차량을 전부 퇴출할 것을 선언하였으며, 싱가포르의 차량등록 인증제도(10년)를 감안했을 때 2030년부터 모든 신차가 청정에너지로 작동해야함을 의미
 - 2025년부터 디젤 자동차와 택시 판매 중단 예정

2. 시장분석

- ▶ 대외개방형 경제를 중심으로 기업 친화적인 환경, 시장 다양성 등 장점을 갖고 있어 동남아시아 테스트베드로써 시장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음. 다국적 글로벌 기업이 싱가포르를 본부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진입장벽이 낮으나 경쟁이 치열하므로 시장분석이 필요함

가.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개방형 경제

- 도시국가 형태로 국토가 좁고 지하자원이 전무한 여건으로, 대외개방형 경제 추구
 -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주류, 담배제품, 자동차 및 석유제품 외 모든 품목에 대해 무관세 정책 유지

■ 기업 친화적인 환경

- 싱가포르는 ‘아시아 비즈니스 중심지’를 목표로 하고 있어, 안정되고 일관된 정부 정책을 펼치는 親기업정책으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며 국가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음
- 17%의 낮은 법인세, 영어 공용화, 투명하고 빠른 행정절차, 공정한 사법제도, 탄탄한 사회 및 산업 인프라 등의 이점을 제공해 상당수의 다국적 글로벌 기업이 싱가포르를 동남아시아 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로 활용하고 있음

* World Bank, Ease of doing business ranking(「Doing Business 2020」) 중 싱가포르 세계 2위(한국: 세계 5위)

■ 다문화 기반 시장 수요

-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이루어져 새로운 트렌드를 통해 동남아시아 진출을 염두하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적합한 테스트베드 시장으로써 활용 가능함
 - 중국계(74.2%), 말레이계(13.7%), 인도계(8.9%) 및 기타(3.2%)로 구성되며,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등 4개 언어를 공용어로 지정
 - 불교(31.1%), 기독교(18.9%), 무교(20.0%), 이슬람교(15.6%), 도교(8.8%), 힌두교(5.0%), 기타(0.6%) 다양한 종교별 인구 구성비를 보임

나. 수출

싱가포르 수출입 동향

- '20년 싱가포르 교역규모, 전년대비 소폭 축소
 - 싱가포르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교역비중은 '20년 기준 약 14.07%이며 그 뒤로 말레이시아(10.69%), 미국(10.55%)순으로 나타남
 - 한국과의 교역비중은 4.6%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 싱가포르 국가별 교역 동향 및 점유율 (단위: 백만 달러, %) 〉

순위	구분	2018	2019	2020
1	중국	100,075	100,672	98,937
		(12.79)	(13.43)	(14.07)
2	말레이시아	87,669	82,862	75,161
		(11.21)	(11.06)	(10.69)
3	미국	72,523	77,008	74,198
		(9.27)	(10.27)	(10.55)
4	대만	48,352	48,762	54,604
		(6.18)	(6.51)	(7.76)
5	홍콩	52,271	47,879	50,060
		(6.68)	(6.39)	(7.12)
6	일본	42,161	37,020	35,976
		(5.39)	(4.94)	(5.12)
7	인도네시아	48,189	42,969	35,413
		(6.16)	(5.73)	(5.04)
8	한국	29,868	28,926	32,349
		(3.82)	(3.86)	(4.60)
9	태국	23,853	23,014	23,872
		(3.05)	(3.07)	(3.39)
10	베트남	15,493	16,609	16,460
		(1.98)	(2.22)	(2.34)
전체		782,264	749,477	703,377

자료: GTA

- '21년 싱가포르 비석유국내수출(NODX) 성장 전망치 상향조정
 - 싱가포르 기업청(ESG), '21년 싱가포르 NODX(non-oil domestic exports) 성장 전망치를 기존 발표(1~3%)에서 상향조정하여 7~8%로 예측
 - * NODX : 석유류 수출을 제외한 실질적 대외 수출을 나타내는 지표

- 특수 기계, 석유화학 및 1차화학 등 비전자제품의 주된 영향으로 '21년 2분기 기준 NODX 전년 동기 대비 성장(10.1%)하였음

■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 및 경쟁동향

- 싱가포르의 對한국 주요 수입품목은 집적회로, 석유와 역청유, 반도체로 나타남
 - '20년 기준으로 싱가포르의 對한국 수출은 167억 미국달러로 전년 대비 9.8% 증가하였고, 對한국 수입은 155억 미국달러로 전년 대비 13.4% 증가함

〈싱가포르 한국 수입품목 중 상위 4개 품목비중(단위 : %)〉

순위	HS코드	품목명	2018	2019	2020
1	8542	전자집적회로	51.9	44.5	57.7
2	2710	석유와 역청유(원유외)	19.6	22.0	11.0
3	7108	금	0.4	1.2	3.4
4	8486	반도체	1.4	2.0	2.4
상위 4개품목 비중(소계)			73.4	69.7	74.5

주 : 순위는 2020년 기준으로 작성

자료: GTA

〈싱가포르 전세계 수입품목 중 상위 4개 품목 경쟁동향(단위: 백만 달러)〉

순위	HS코드	품목	순위(국가)	국가명	2018	2019	2020
1	8542	전자집적회로	1	대만	24,061	23,730	30,233
			2	말레이시아	10,133	9,658	11,360
			3	한국	7,368	6,102	8,993
2	2710	석유와 역청유 (원유외)	1	말레이시아	9,728	9,794	8,169
			2	중국	6,354	7,319	4,940
			4	한국	2,782	3,020	1,712
3	7108	금	1	태국	131	363	2,839
			2	인도네시아	1,648	2,502	2,275
			7	한국	62	168	523
4	8411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 와 그 밖의 가스터빈	1	미국	8,558	11,109	8,043
			2	영국	2,461	3,615	3,142
			13	한국	63	105	95

주 : 순위는 2020년 기준으로 작성

자료: GTA

■ 진입장벽

- 싱가포르의 개방경제를 지향해 진입장벽이 매우 낮음
 - 차량, 담배, 석유, 주류제품 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고, 국제 기준 도입, 투명한 행정,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애로사항도 없는 편임
 - 그러나 그만큼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진입해 있어 경쟁이 치열함

■ 수출 성공 및 실패사례

- (성공사례)
 - A사는 '18년부터 해외진출 확장을 위해 싱가포르 소재 글로벌 기업 C사 프로젝트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최종 선정 단계에서 떨어짐. 이후 새로운 가격제안과 함께 C사측과 연계 시도하였으나 큰 진전 없었음
 - 하지만 '20년 싱가포르무역관의 <1:1 상시연결지원 서비스>를 통해 G사측 담당자와 화상상담을 지원 받았으며, 이후 제3국에 위치한 C사 본사 구매담당자와 4자상담도 추가 주선된 후 무역관의 밀착지원을 통해 최종 가격협상을 성공시키고 신규 프로젝트를 수주함
 - 이는 차별화된 국내 선도기업이 글로벌 기업의 비즈니스 방법과 구매절차를 빨리 이해하고, 무역관이 1:1 상담 과정에서 미세한 언어적 표현차이, 상담 후 바이어 반응 확인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하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여 생긴 결과로 볼 수 있음
- (실패사례)
 - B사는 싱가포르무역관의 <사업파트너연결지원 서비스>를 통해 국내제조품을 물색하고 있던 현지 바이어 D사와 수차례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수개월에 걸쳐 이메일과 유선소통 후 바이어는 구매를 결정함
 - 하지만 바이어에게 전달된 최종샘플은 사전검토에도 불구하고 영문표기가 싱가포르 기준에 맞지 않았으며, 바이어가 원하던 사이즈가 전달되지 않음. 또한 최종 구매계약 체결 전 바이어는 국내 제조공장을 방문하려 했으나, B사는 제조과정이 타 국가에서 이뤄진다는 밝혔으며 국내에서는 패키징만 완료된다고 정정함. 이에 바이어와의 최종계약은 결렬되었음
 - 처음 싱가포르 바이어와 접촉 시, 기본적인 정보(제조국, 성분내역, 사이즈 등)가 정확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정보들이 재정정될 경우 바이어와의 신뢰도가 떨어져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큼. 또한, 싱가포르는 인근국에 재수출하는 주요 바이어들이 다수 위치해 있고 국가간 넓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바이어들이 많은 국가인 만큼, 이러한 실패 사례는 인근국 진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다. 투자

■ 對싱가포르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 (최근 동향) 2020년 싱가포르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대비 20.7% 감소하여 U\$ 90,562백만을 기록 (Flow 기준)
 - 이는 2020년 동남아시아로 유입된 총 FDI(U\$ 135,945백만)의 66.6%를 차지하는 규모로 싱가포르는 역내 주요 투자 대상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 및 증감률 (단위: 백만 미국달러) 〉

투자 지역	2016	2017	2018	2019	2020
싱가포르	70,221 (17.6%)	84,671 (20.6%)	75,969 (-10.3%)	114,162 (50.3%)	90,562 (-20.7%)

자료원: UNCTAD (유량(Flow) 기준)

■ 산업별·국가별 對싱가포르 FDI 현황

- (산업별) 금융보험업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약 5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소매업(15.3%), 기타 서비스업(13.1%), 제조업(12.0%) 순임 (2019년 Stock 기준)

〈 싱가포르 주요 산업별 FDI 현황〉

(단위: 백만 싱가포르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제조업	158,378	13.0	169,202	11.9	219,710	13.6	219,970	12.0
건설업	4,312	0.4	5,010	0.4	6,933	0.4	7,598	0.4
도소매업	281,435	23.2	272,027	19.2	252,166	15.7	281,482	15.3
숙박요식업	5,421	0.4	5,917	0.4	5,453	0.3	5,394	0.3
운송저장업	25,735	2.1	27,322	1.9	26,228	1.6	29,494	1.6
정보통신업	17,639	1.5	29,539	2.1	34,672	2.2	27,680	1.5
금융보험업	572,091	47.1	756,705	53.3	837,566	52.0	969,364	52.8
부동산업	34,045	2.8	36,753	2.6	40,450	2.5	42,644	2.3
기타 서비스업	102,965	8.5	103,789	7.3	175,517	10.9	240,531	13.1
기타	12,364	1.0	12,633	0.9	10,972	0.7	12,412	0.7
총계	1,214,385	100.0	1,418,896	100.0	1,609,666	100.0	1,836,568	100.0

자료원: 싱가포르 통계청(2021년 10월 작성일 기준 최신 자료)

주: 싱가포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FDI 통계치는 연말 시점 저량(Stock) 기준

- (국가별) 미국이 가장 높은 비중(35.8%)을 차지하는 가운데, 케이만군도, 버진군도, 룩셈부르크와 같은 조세 피난처를 통한 투자가 뒤를 이음

* 2019년 기준 한국은 對싱가포르 해외직접투자국 14위(2.0%)

〈 對싱가포르 국가별 FDI 현황 〉

(단위: 백만 싱가포르달러, %)

순위	국가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미국	279,679	34.7	336,514	35.6	289,030	28.0	427,687	35.8
2	케이만군도	106,904	13.3	145,204	15.4	212,567	20.6	178,443	14.9
3	영국령 버진군도	117,262	14.5	125,049	13.2	128,815	12.5	144,516	12.1
4	일본	91,707	11.4	97,742	10.4	115,879	11.2	131,084	11.0
5	룩셈부르크	65,533	8.1	68,686	7.3	109,029	10.6	110,285	9.2
7	홍콩	56,012	6.9	61,285	6.5	61,657	6.0	76,063	6.4
9	중국	23,807	3.0	39,696	4.2	39,990	3.9	44,028	3.7
10	말레이시아	35,162	4.4	37,623	4.9	38,511	3.7	38,682	3.2
	한국	13,919	1.7	16,523	1.8	19,723	1.9	23,721	2.0
16	대만	16,770	2.1	15,717	1.7	17,670	1.7	19,306	1.6

자료원: 싱가포르 통계청(2021년 10월 작성일 기준 최신 자료)

주: 싱가포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FDI 통계치는 연말 시점 저장(Stock) 기준

- 최대 투자국인 미국의 對싱가포르 투자는 주로 금융보험업(55%)과 전문서비스업(28%)에 집중되어 있으나, 최근 제조업, IT에 대한 투자가 성장하고 있음
- 일본(4위) 또한 금융보험업(3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도소매유통업(29%), 제조업(15%) 순이며, 중국(9위)의 경우 도소매유통업(44%)과 금융보험업(41%), 그리고 부동산업(6%)이 뒤를 이음

■ 對싱가포르 투자진출 유망산업

-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 동남아시아 디지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며 향후 10년 내에 시장규모가 U\$ 1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많은 IT 거대 기업이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의 전략 거점으로서 對싱가포르 투자 확대 예상
 - * 자료: 「e-Conomy SEA 2019/2020」 (Google, Temasek, Bain&Company)
 - 특히 싱가포르는 우수한 IT인력과 영어, 중국어, 인도, 말레이어를 공용어로 하며, 6억 5천만 동남아시아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고 있어 향후 역내 '글로벌 IT 허브'로서 시장 입지가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

- * 페이스북,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넷플릭스 등이 싱가포르에 아태지역 본사를 두고 있으며, 최근 페이스북, Zoom 등 싱가포르 내 자체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 * 또한, 알리바바, 텐센트(왓챗), 바이트댄스(틱톡) 등 중국 IT기업들도 2020년 미국 제재로 계기로 직원채용 확대, 사무실 확장, 부동산 매입투자 등 진출 가속화

● 친환경 기술 (Green Tech)

- 글로벌 기후변화 관심 확대 및 싱가포르 정부의 Green Plan 2030 정책 추진으로 ▲신재생 에너지 확대, ▲빌딩 에너지 효율화, ▲저탄소 스마트 시티 구현 기술 등 친환경 분야에 민·관 투자 확대세
- 특히 그린채권 (Green Financing)을 발행하여 최대 190억 싱가포르달러 규모의 공공부분 그린 프로젝트가 착수될 예정이며, 싱가포르 DBS은행, SGX(증권거래소), Temasek (국부펀드) 그리고 Standard Chartered는 2021년 말에 세계 최초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한 시범 플랫폼인 Climate Impact X (CIX) 출시를 계획,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투자 생태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싱가포르 투자진출 진입장벽

- 싱가포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World Bank)’ 세계 2위로,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투자진출 시 진입장벽이 높지 않음
 - 특히 영어 공용, 안정적인 정치·사회, 합리적인 제도,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 유연한 노동시장, 치안 등 다양한 이점으로 비즈니스를 위한 최적의 국가로 꼽힘
- 다만, 싱가포르의 전반적으로 높은 물가(주택 및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교육비, 외국인 거주비 등)가 싱가포르 투자진출 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음.
 - * 싱가포르는 2020 Cost of Living Survey(Mercer)에서 전세계 5번째로 생계비가 높은 도시로 선정 (1위 홍콩, 2위 아시가바트(Ashgabat), 3위 동경, 4위 취리히, 11위 서울)
 - 사무실 월 임대료는 시내(Central Business District) 기준 평균 1sqf 당 S\$ 10~20이며, 인건비는 업종 및 직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금융·IT·반도체 종사자의 경우 평균 월 임금은 S\$ 6,752~7,155 수준 (자료: Jobstreet)
-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자국민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으로 외국인 채용 제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현지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다국적 기업이 증가함

■ 우리기업 투자진출 성공·실패 사례 및 시사점

- (성공사례) 싱가포르 정부 방침에 따른 시장기회를 포착한 A사
 - 싱가포르 정부는 Green Plan 2030을 발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다각도로 탄소저감 방법 및 친환경 시장 생태계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에 KOTRA에서는 현지 정부 출연기관과 협력하여 한국 친환경 에너지 기업의 싱가포르 진출 지원사업을 진행함
 - 에너지효율 기술을 보유한 Q사는 이러한 현지정부의 방침 확대에 따른 기회를 포착, KOTRA에서 주최한 지원사업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현지 기업 및 정부와 협력기회를 얻음으로써 투자 진출에 성공하였음
- (실패사례) 현지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력난을 겪는 B사
 - 최근 현지 정부의 외국인 채용 제한이 강화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는 다국적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있어 인재확보에 경쟁이 있음. 또한 싱가포르 노동시장은 매우 유연하여 이직률이 높음. 이로 인해 핵심 인재를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음
 - 싱가포르에 진출한 외국 기업으로서, 우수한 신규 인력 채용 및 유지에 각별한 노력 필요함. 싱가포르에 맞는 올바른 근무 문화와 환경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며, 현지 노동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유의해야함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의제

가. 교역

■ FTA 체결 현황

- 한·싱 자유무역협정(KSFTA)은 2006년 3월 발효되었으며,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은 2007년 6월 발효됨

■ 우리나라와의 교역현황

- 2020년 기준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의 6대 수입국이자 7대 수출국에 해당함
 - 싱가포르 수입 및 수출 모두 '19년 전년대비 감소세를 극복하고 '20년 증가세로 전환
 - KITA 해외무역통계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對한국 수입 및 수출이 '20년에 전년대비 증가함
 -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총 수입액 58%를 차지하는 '전자집적회로(HS코드 8542)'의 수입 증감률이 전년대비 47.4%였으며, 다음으로 높은 수입규모를 차지한 석유와 역청유(HS 2710)는 전년대비 43.3% 감소하였으나 對한국 수입규모의 11% 정도의 비중에 머무름

〈싱가포르 국가별 수입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중국	49,637	9.4	49,079	-1.1	47,435	-3.3	22,244	20.5
2	말레이시아	42,804	10.2	41,717	-2.5	41,809	0.2	22,077	42.4
4	대만	31,398	15.6	32,358	3.1	36,350	12.3	18,784	40.7
3	미국	42,105	21.6	43,935	4.3	35,146	-20.0	15,862	1.2
5	일본	22,259	8.7	19,429	-12.7	18,115	-6.8	8,826	11.0
6	한국	14,198	-12.2	13,728	-3.3	15,573	13.4	7,723	18.4
7	인도네시아	15,278	1.0	15,618	2.2	13,943	-10.7	5,948	-7.2
-	전체	370,650	13.1	359,180	-3.1	329,064	-8.4	158,996	18

주: *는 2021년 5월 누계

자료: KITA 해외무역통계

〈싱가포르 국가별 수출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중국	50,610	-6.3	51,660	2.1	51,394	-0.5	24,679	42.6
2	홍콩	48,630	5.6	44,460	-8.6	45,366	2.0	24,199	38.4
3	말레이시아	44,880	13.3	41,192	-8.2	33,309	-19.1	17,502	32.5
4	미국	31,881	31.8	34,410	7.9	40,184	16.8	16,316	-5.6
5	인도네시아	33,012	18.1	27,375	-17.1	21,437	-21.7	11,331	24.8
6	대만	16,987	2.4	16,398	-3.5	18,229	11.2	9,097	30.9
7	한국	15,679	-6.6	15,213	-3	16,706	9.8	7,935	19.2
8	일본	20,022	17.1	17,648	-11.9	17,751	0.6	7,077	-5.6
9	태국	15,559	6	15,371	-1.2	14,095	-8.3	6,408	5.6
-	전체	412,813	10.6	390,652	-5.4	368,096	-5.8	181,492	25.8

주: *는 2021년 5월 누계

자료: KITA 해외무역통계

나. 투자

■ 한-싱 직접투자(FDI) 현황

- (對한 투자) '68년~'20년 싱가포르의 對한국 투자 누적총액은 U\$ 230억(신고기준)로, 한국의 총 누적 외국인직접투자액(U\$ 3,779억)의 6% 차지(4위 FDI국가*)
 - * FDI 순위(누적총액, U\$억) : ①미국(893), ②일본(464), ③네덜란드(321), ④싱가포르(230), ⑤영국(194), ⑥몰타(186), ⑦홍콩(184), ⑧중국(169), ⑨독일(168), ⑩캐나다(114)
- ('20년 기준) 금융업 투자금액이 전년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하면서 U\$ 22.8억(신고기준)으로 미국(U\$ 53억)에 이어 FDI 투자국가 2위 기록
- (투자형태) 과거부터 국부펀드(Temasek, GIC) 및 다국적 기업 아시아 지역본부의 재무적 투자가 큰 주축(총액의 약 70%)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 對한국 물류센터(Mapletree, Sunwood), 데이터센터(Keppel) 투자 관심 확대
- (對싱 투자) '68년~'20년 한국의 對싱가포르 투자 누적총액은 U\$ 580억으로, 한국의 총 누적 해외직접투자액(U\$ 5,771억)의 3.3% 차지(6위 투자대상국*)
 - * 해외투자 순위(누적총액, U\$억) : ①미국(1363), ②일본(752), ③케이만군도(429), ④홍콩309), ⑤베트남(281), ⑥싱가포르(189), ⑦영국(187), ⑧호주(161), ⑨캐나다(160), ⑩룩셈(136)
- ('20년 기준) 부동산업(140%), 도소매업(26%) 투자 주도로 전년대비 약 31% 증가하며 U\$ 56.7억(신고기준)을 기록
- (투자형태) 대기업(총액의 70%) 중심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투자비중이 크나, 동남아시아 성장 및 한·싱FTA('06)을 기점으로 중소기업의 투자 증가세*이며, 업종 또한 스마트 제조·연구, IT·이커머스, 프랜차이즈 등으로 다양화
- * 중소기업 투자액/법인수 변동 추이: ('96) U\$4백만/7개사→('06) U\$39백만/17개사→('16) U\$87백만/32개사→('19) U\$1,064백만/70개사

〈 한·싱가포르 연도별 직접투자 현황 (신고기준) 〉

(단위 : U\$ 백만, ()는 신고건수)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누 계
싱가포르의 對 한국 투 자	1,388 (100)	431 (116)	1,673 (161)	2,521 (149)	2,347 (180)	1,793 (166)	1,475 (213)	1,307 (229)	2,281 (208)	〈'68~'20〉 23,041 (2,853)
한국의 對 싱가포르 투 자	593 (202)	831 (209)	904 (224)	2,107 (237)	1,420 (261)	1,435 (341)	3,167 (512)	4,327 (529)	5,674 (503)	〈'68~'20〉 25,973 (4,60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은행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디지털 협정 논의를 통한 산업 협력

-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협상이 '20년 6월 22일 개시되었으며 '21년 내 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한국이 맺게 되는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이며 상품·서비스를 다루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디지털 산업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어 추후 디지털 생태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아시아 금융허브인 싱가포르와 협력을 통해 디지털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
- 싱가포르 정부는 뉴질랜드·칠레와 함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을 체결한 바 있으며, '21년 09월 한국에서도 해당 협정 가입 의사를 밝혀 DEPA 가입 협상을 공식 개시('21.10)

■ 녹색경제 실현을 위한 공동협력 분야 발굴

- 한국 환경부와 싱가포르 지속가능환경부는 한국-싱가포르 간 환경 협력 강화를 위한 양자회담('21.07)을 진행하고 탄소 중립,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기술 개발, 재생에너지 및 물산업 기술 협력 등 논의하였음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 Green Plan 2030의 일환으로 태양열 발전확대와 저탄소 에너지를 수입하는 것을 포함하여 탈탄소화 전략을 검토중
 - 싱가포르 태양열 에너지 용량은 지난 5년동안 6배이상 증가하였으며, 2030년까지 최소 2기가와트 피크(gigawatt-peak)의 태양 에너지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싱가포르는 폐기물을 줄이고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를 적용하는 접근 방식을 검토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효과를 도모하고자 함

Ⅲ. 진출전략



III

진출전략

- ▶ 싱가포르는 기업 친화적 비즈니스 환경을 바탕으로 대외 개방형 경제시장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 비교적 작은 규모의 내수시장과 글로벌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하여 진출을 시도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른 기술도입, e커머스 활성화 등 여러 기회요인이 있어 이에 대한 이해와 전략수립이 필요함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 기업친화적 환경에 따른 비즈니스 활성화 ❖ 정치 및 사회적 측면에서의 안정성 ❖ 대외 개방형 경제 시장	❖ 비교적 작은 내수시장 규모 ❖ 높은 물가와 비싼 임대료 및 인건비 ❖ 인구고령화 증가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 쏘산업에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연관 산업 발전 가능성 다대 ❖ 한류 효과로 한국산 호감도 상승 ❖ 싱가포르 내 e-커머스 활성화	❖ 외국인력에 대한 규제 강화 ❖ 글로벌 기업 간 경쟁 양상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기업친화적 환경을 활용, 법인 설립 및 투자가 모색에 중점 • 디지털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시 친환경 및 지속가능성에 초점	장기적 관점 접근, 지속가능성 염두
ST 전략 (강점 활용)	• 디지털세대 수요를 겨냥한 유망 소비재 발굴 • 온라인 플랫폼 적극 활용	디지털세대 니즈 파악 및 소비 공략
WO 전략 (기회 포착)	• 디지털화를 통한 국가 전체를 스마트화하기 위해 기술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음 • 동남아 시장 진출의 테스트베드로 활용	디지털 기술결합 주목
WT 전략 (위협 대응)	• 작은 시장규모 및 높은 현지물가를 감안하여, 초기 진입비용 절감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통한 시장성 확인 필요	온라인 플랫폼 활용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022년 진출 전략	
구분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생활소비재	● E-Commerce 가속화와 생활소비재 진출 -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 - 싱가포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진화
식품	● 대체식량 및 자국 식량생산력 확보로 미래 식량산업 주시 - 대체식량 생산 주목 - 자국 농수산 식품 생산을 위한 농업기술 필요
친환경	● 친환경 전환을 통한 녹색경제 공략 - 전기차(EV) 및 관련 시설 수요 증대 - 친환경적인 건물 설계와 탄소저감 이슈
사이버보안	● 디지털전환 화두에 따른 사이버보안 중요성 증대 - 싱가포르 사이버 보안전략 주시 - 사이버 환경 개선 및 역량강화 플랫폼 구축

디지털 · 친환경 중심의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진출 전략 수립

2-1. E-Commerce 가속화로 생활소비재 진출 용이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코로나19 영향으로 외출이 어려워지고 디지털 경제가 보편화됨에 따라 관련 e커머스 및 IT솔루션 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음
- 싱가포르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며 소비자 편의성 증대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
 - 동남아시아의 전자상거래 총 상품가치가 '21년 1,320억 미국달러에서 5년 내 2,540억 미국달러로 거의 두 배 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
 - * 자료원 : Sync South-east Asia Report
 - 정부는 국가를 디지털화하는 'Smart Nation' 전략을 진행중이며, 5년내 5G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설치하는 등 경제 및 사회적인 면에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 방역조치로 인한 외출제한 및 재택근무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모든 소비를 해결하는 형태인 홈코노미(Home+Economy)가 자리 잡음
- 싱가포르, Q-commerce 및 Live Stream 등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진화
 - 싱가포르의 배달 어플 중 하나인 pandamart는 연중무휴로 30분 이내에 배달하는 것을 목표로 퀵커머스(Quick commerce)를 운영하고 있음
 - 온라인 혹은 SNS로 상품판매를 생중계하는 Live Stream 증가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퀵커머스를 활용한 식료품 판매
 - 한류효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싱가포르 내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증가한 커피나 증류주 등 현지 소비자가 선호하는 한국제품 온라인 유통망 공략
-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속되는 '홈코노미' 소비재 품목 공략
 - 싱가포르에서는 컴퓨터 및 전자기기 제품, 가구 및 생활용품의 온라인 판매비중이 높아, 현지 주요 온라인 마켓 입점을 통한 진출전략 필요

2-2. 미래 ‘식량산업’ 주시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싱가포르의 한정된 국토와 자원 부족 등의 한계로 인해 현지 소비식품의 9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토지와 노동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체식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체식량 생산 및 판매 이슈 대두
 - 세계 최초 상업용 배양육 생산시설 가동하고 세계 최초로 배양육 제품 판매 승인하는 등 싱가포르 내 식량안보를 위한 선도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음
 - * '20년 12월, 싱가포르 식품청(SFA)는 미국 A기업에서 동물 세포를 성장시켜 생산한 배양육(닭고기) 제품의 판매를 승인하며 세계 최초로 배양육 제품 판매를 허용한 기관이 되었음
- 농수산물식품 자국 내 생산 확대를 위한 노력
 - 싱가포르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현지 생산 식품에 필요한 영양 요구량의 30%를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발표된 '30 by 30'의 일환으로 첨단 농업기술과 R&D 투자 지원
 - 공공주택(HDB) 옥상 위 공간을 도시농업 부지로 입찰하고 도시 농업(Urban farming)을 위한 대체공간으로 사용할 예정
 - 독일 실내 농업 개발업체는 싱가포르 식품청(SFA)의 '30 by 30 Express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고 내 수직 대형 농장 및 연구센터 건설중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첨단 기술로 접목한 농식품 및 관련 산업 유망
 - 청정 녹색 농장 시스템(Green farm production system)과 같이 천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합성 살충제와 같은 투입물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방식의 도시농업 기술에도 주목
- IoT기반의 기술과 저비용·고효율을 창출하는 스타트업 기업의 제품이 시장에서 환영받고 있음
 - 싱가포르 환경수요에 적합한 스마트팜 개발 시 시장진출 기대 가능

2-3. 친환경 전환을 통한 '녹색경제' 공략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녹색경제 추구
- 싱가포르 내 내연기관 차량 퇴출 선언 및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 EV) 구매 적극 장려하고 산업의 탈탄소화를 요구하는 등 사회전반적인 '친환경' 추구 움직임이 대두됨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 차량(Green Vehicle) 도입 지원
 - 싱가포르, 2040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퇴출 선언하였으며 차량등록 10년 인증제도를 감안하면 2030년부터 모든 신차가 청정에너지로 작동해야함
 - 싱가포르 내 EV 관련 이니셔티브에 3천만 싱가포르 달러 예산 배정
 - *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21년 글로벌 전기차 전망에서 '20년 전세계 주행 전기차 수가 '19년보다 43% 증가하였다고 발표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수요 증대에 따른 파생시장 관심 필요
 - 싱가포르 내 모든 차량을 전기 혹은 하이브리드로 전환하는 것을 선언함에 따라, 국가 내 전기차 충전 시설 구축 수요 증대 전망
 - * 공공주택(HDB)단지, 산업단지 및 중심업무지구에 있는 공용 주차장에 총 600개 이상의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22년 3분기까지 설치예정
- 싱가포르 정부의 탈탄소 정책 추진으로 현지 조선사와 해양업계 또한 대체연료 관련 부품과 기술에 관심 증가
 - 폐수를 바다에 버리는 방식의 개방형 스크러버의 입항 금지를 결정하였으며, 해운산업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약 1000억원 규모 연구개발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힘

2-4. 디지털전환에 따라 ‘사이버보안’ 시장 유망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핀테크, 금융 등이 발달한 싱가포르는 사이버 보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음
- 싱가포르 정부, AI 및 사이버 보안 연구 지원 프로그램에 5천만 달러 투자 계획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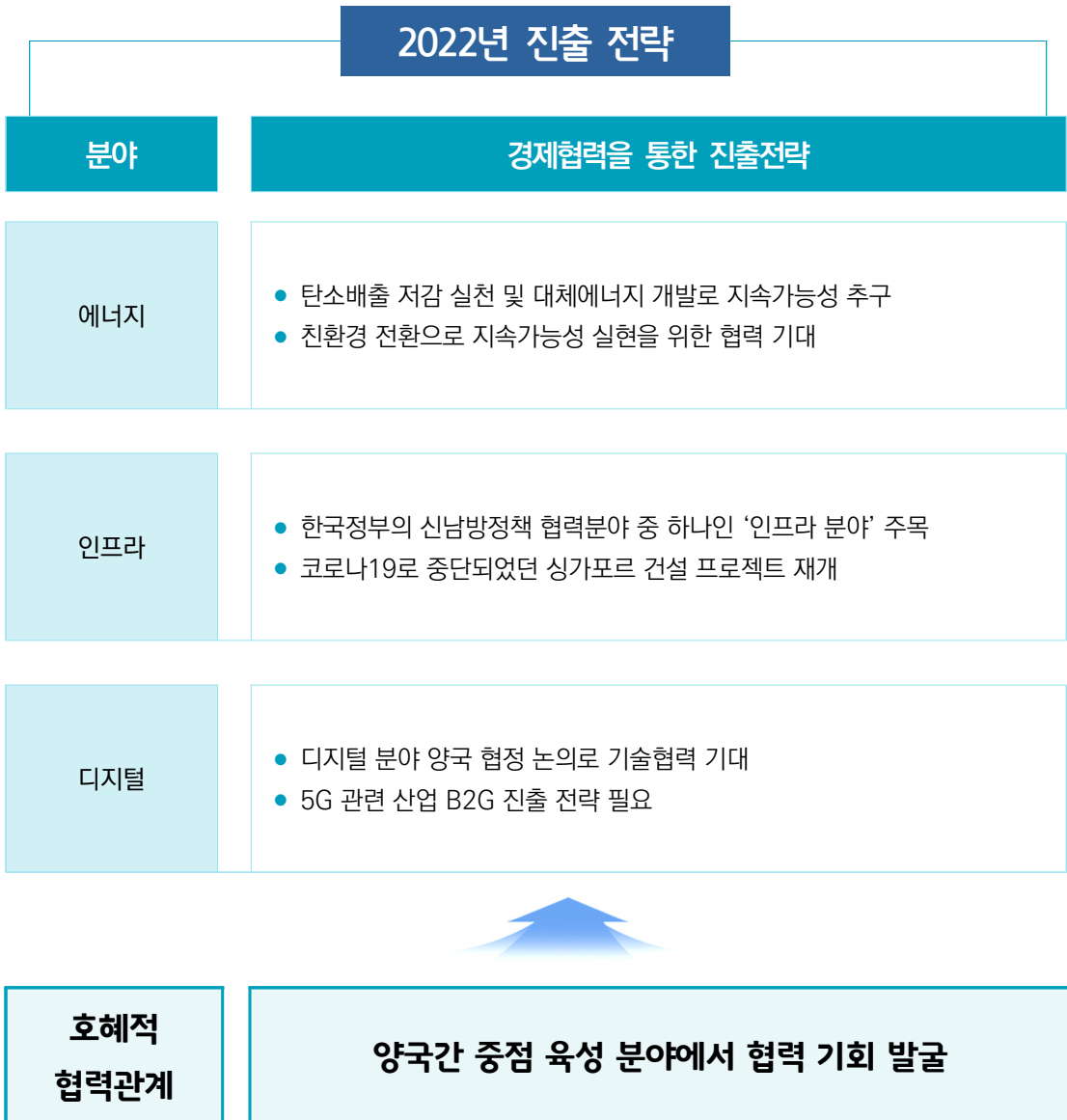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싱가포르, 사이버 전략 2021 발표('21.10)
 - 싱가포르 사이버 전략 2021은 ▲복원력 있는 인프라 구축, ▲더 안전한 사이버 공간 구현, ▲국제 사이버 협력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설정함
 - 싱가포르 사이버 보안청(Cyber Security Agency, CSA),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스마트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바일 장치를 개발하고 있으며 연간 사이버 보안전략을 발표하여 사이버 위협에 대처함
 - CSA는 'SG Cyber Safe Programme'의 일환으로 우수한 사이버 보안조치를 취한 기업을 구별할 수 있는 일종의 표시(Trustmark)를 도입할 예정임을 발표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온라인 영역뿐 아니라 전(全)산업에 걸친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면서 사이버보안 강화에 필요한 기술 및 제품수요 증가 전망
 - 2020년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 중 사이버범죄의 비중이 높은바, 사이버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품목 시장 수요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됨
- 모바일 앱웨어 프로그램 등 스마트폰 보안에 특화된 제품 필요
 - 싱가포르는 Smart Nation 구축과 5G망 도입 등 국가 전체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e커머스 활성화에 따른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활성화 되는 등 스마트폰을 통한 인증·결제·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관련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술력을 장점으로 진출전략 수립

3. 한-싱가포르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1. 미래 대체에너지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탄소저감에 대한 글로벌 이슈에 따라 싱가포르 내 탄소중립 및 그린에너지 실현 과제 등장
- 싱가포르 내 수자원, 태양열 등 대체에너지 기술 개발로 지속가능성 추구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한국-싱가포르 환경 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간 양자회담 진행('21.07)
 - 수자원 협력뿐 아니라 탄소 중립, 순환경제 정책현황 등에 대해 논의
- 태양광 에너지 분야 집중 육성 및 투자
 - 싱가포르 수자원청(Public Utilities Board, PUB), 수자원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여 활용하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태양광 발전단지 설치
 - 2030년까지 최소 2기가와트 피크(gigawatt-peak)의 태양 에너지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 약 350,0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
 - 태양광 PV 시스템의 성능 개선 및 태양 에너지 시스템을 도시 환경에 통합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테스트베드에 투자 증대 예상
- 싱가포르 정부의 미래 에너지기술 역량 인재 육성
 - 싱가포르 기업청(ESG),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현지기업 대상 교육 및 제품 개발 프로젝트 지원하는 Enterprise Sustainability Programme 도입
 - 싱가포르 EMA(Energy market Authority), 새로운 에너지 솔루션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개발을 위해 싱가포르 최초로 공과대학 내 전력 공학 학부 신설 논의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미래 에너지 산업 개발에 부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싱가포르 기업과 협력 추진
 - 친환경 이슈에 대한 싱가포르 정부의 정책을 주시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3-2. 인프라 구축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인프라 개발을 위한 양국간 미래 협력 가능성 다대
- 싱가포르 육상교통 마스터플랜 2040에 따라 유관 프로젝트 개시 기대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한-싱가포르 외교장관 회담('21.6)에서 신남방정책의 7대 협력분야 강조
 - 협력분야로는 ▲보건, ▲교육, ▲문화, ▲무역투자 확대, ▲인프라 개발, ▲미래산업 육성, ▲비전통 안보가 있음
 - 한국 건설사의 참여가 높은 주요 인프라 사업에 대한 미래 협력을 논의함
- 싱가포르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예정
 -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and Transport Authority, LTA), 2030년까지 사람 중심의 육상 운송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LTA는 싱가포르 철도망을 360km로 확장, 철도 시스템 업그레이드, 도로 및 통근 인프라 구축 등 포괄적인 교통 시스템 지향, 자율주행차와 같이 미래의 운송 기술 개발 등을 추구함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향후 건설 수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관심 필요
 - 싱가포르 건설청(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 BCA)은 중기적으로 건설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간 S\$250억~ S\$320억에 이를 것으로 밝혔음
 - 주요 수요는 공공 부문이 주도하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간 S\$140억에서 S\$180억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정부 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력과 친환경 건설을 위한 기술력 중요
 - 싱가포르 육상교통 마스터플랜(Land Transport Master Plan, LTMP) 2040에 따라, 싱가포르 내 교통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건설 및 관련 조달 프로젝트 진행 전망
 -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정부정책을 기반으로 '친환경' 건설 수요가 기대되어 이에 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략 수립 필요

3-3. 디지털 전환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국가간 디지털 통상 협정 체결에 대한 협상이 개시되어 향후 협상 체결 시 긴밀한 협력이 기대됨
- 디지털을 우선으로 하는 Digital-first Singapore을 위해 5G구축, Smart Nation 등 추진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디지털 통상 분야 협정 체결 논의
 -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협상은 '20년 6월 22일 개시되어 '21년 내 협정 체결을 목표로 협상중이며,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가 체결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대해 한국에서 가입의사를 밝혀 협상을 공식 개시함
- 2025년까지 향후 5년 내 5G 네트워크 싱가포르 전국망 구축 예정
 - 싱가포르 MTI, 항구 운영 개선·고품질 클라우드 게임 제공 등 민간기업과 5G 어플리케이션 운영 시도 중
- 싱가포르, 정부 주도하에 '스마트네이션' 구축을 위한 대규모 정보통신기술 도입
 - 싱가포르는 디지털 정부·디지털경제·디지털사회를 달성하기 위해 교통·건강·도시생활·정부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스마트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중임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5G 구축·코로나19 영향으로 실내활동 비중이 높아지는 등 디지털 시장의 성장가능성 증대
 - 디지털 헬스케어·재택근무 등에 대한 IT솔루션이 주목받고 있음
 - 5G와 같은 기술 발전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기대됨
- 정보통신 외국기업과 협력 및 투자유치를 위한 정부 지원 지속
 - '스마트네이션' 전환 목표를 위한 AI, 빅데이터기반 ICT 기술 투입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G2B 진출 고려해볼 수 있음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HS Code	3305	수입관세율(%)	0
	수입액('20/US\$백만)	73	대한수입액('20/US\$백만)	5
헤어케어	선정사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헤어살롱등이 임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되며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바 있으나, 샴푸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품목에 대한 수요는 지속되고 있어 싱가포르 내 샴푸소비는 전년대비 1.4% 성장하였음		
	시장동향	건강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며 천연 추출물을 함유한 제품들도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음		
	경쟁동향	Unilever사는 현지 대형마트 등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채널을 선점하고 있으며 Loreal은 전문 살롱에서 운영되는 등 싱가포르 시장 점유율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		
	진출방안	싱가포르의 습한 기후에 맞는 기능성 제품을 중점으로 현지 맞춤형 차별화 전략이 필요		
품목명 2	HS Code	842139	수입관세율(%)	0
	수입액('20/US\$백만)	196	대한수입액('20/US\$백만)	12
공기정화기	선정사유	코로나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공기질에 대한 염려가 커지면서 공기청정에 대한 관심 증대		
	시장동향	공기정화기(Air Purifier)에 대한 수요는 코로나 사태가 심화됨에 따라 증가하게 되었으며 2020년 기준 5.0%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한국으로부터 공기정화기 수입이 전년대비 급격히 상승하였음		
	경쟁동향	글로벌 브랜드 Panasonic Asia Pacific이 싱가포르 공기정화기 시장 점유율 절반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그 뒤의 2,3순위 시장점유 업체가 각각 10%대 점유율을 보여 사위 3순위내의 기업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진출방안	필터 보유여부나 에너지 소비효율성 등을 갖추고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하여 진출하는 등 차별화 전략이 필요함		
품목명 3	HS Code	2102	수입관세율(%)	0
	수입액('20/US\$백만)	12	대한수입액('20/US\$백만)	0.29
커피	선정사유	2020년 싱가포르 인스턴트 커피 수입규모는 2019년에 비해 전체 55.1% 증가를 보였음		
	시장동향	한류의 영향으로 싱가포르 내 한국 카페 프랜차이즈가 주요 쇼핑물 등에 입점하였음		
	경쟁동향	싱가포르 커피 수입규모는 말레이시아가 87.1%의 점유율로 압도적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며 커피 브랜드로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과 싱가포르 자국브랜드 커피 브랜드도 있음		
	진출방안	기업들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려는 노력과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경로를 더 넓히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진출을 시도해볼 수 있으며, 싱가포르 내 설탕 섭취량을 감소하기 위한 캠페인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소비자는 기존의 달콤한 커피맛을 선호하여 커미믹스의 소매 판매량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품목명 4 위생 물티슈 (소독제, 제균 물티슈 등)	HS Code	380894	수입관세율(%)	0
	수입액('20/US\$백만)	106	대한수입액('20/US\$백만)	12
	선정사유	2020년도 물티슈 전체 수입액은 약 1억 614만 미국달러 수입규모를 기록해, 전년 대비 440% 가량 증가했으며 대한수입액이 증가하여 전체 수입국중 3위를 기록하였음		
	시장동향	코로나19로 인해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K-뷰티 영향으로 한국산 화장용 물티슈 판매도 증가하였음		
	경쟁동향	현지 대형 드러그스토어 및 대형마트에서 물티슈를 자체 개발하며 다양한 타입을 출시하여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음		
	진출방안	싱가포르의 식당 등에서 무료로 화장지나 물티슈를 제공하는 경우가 드물어 현지 소비자들은 공공 장소 방문 시 물티슈를 휴대하거나 따로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휴대에 편리한 작은 사이즈 제품 등 현지 상황에 따른 제품 차별화 전략이 필요		
품목명 5 시리얼	HS Code	1904	수입관세율(%)	0
	수입액('20/US\$백만)	44	대한수입액('20/US\$백만)	0.14
	선정사유	싱가포르에서 시리얼 수입은 '20년기준 전년대비 9.5%가량 증가하였으며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됨		
	시장동향	시리얼 범주 중 Ready to Eat Cereals에 대한 매출비중이 가장 높으나 Muesli 및 granola에 대한 판매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시리얼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됨		
	경쟁동향	싱가포르 시리얼 시장에서 상위 2개 브랜드가 전체 시장의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함		
	진출방안	오프라인 매장 기반의 소매판매가 전체 시리얼 판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웰빙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소비자를 타겟으로 새로운 제품을 시도해 볼 수 있음		

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건설) 친환경	선정사유	• 탄소저감에 대한 글로벌 이슈 및 싱가포르 정부주도하에 저탄소 실현 촉구
	시장동향	• 싱가포르 내 녹색차량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친환경적인 건물 설계가 촉구되고 있음
	경쟁동향	• 최근 전기차 충전시설 건설 입찰에 여러 현지기업이 성공하였으며, 향후 정부주도 공공입찰에 주목 필요
	진출방안	• 친환경 중심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
품목명 2		
(금융) 핀테크	선정사유	• 싱가포르 내 시장규모는 아직 크지 않으나, 최근 빠른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음
	시장동향	• 싱가포르 통화청(MAS)의 디지털 뱅킹 라이선스 제도 도입에 따라 향후 신규 투자 발생이 기대됨
	경쟁동향	• 중국 거대 IT기업(알리바바, 텐센트) 등이 디지털 뱅킹 라이선스를 신청하며 시장 진입을 계획함에 따라 향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진출방안	• 기술 개발 초기단계부터 현지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시장 진입기회 모색 필요
품목명 3		
(문화) 콘텐츠	선정사유	• 한류콘텐츠 및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임
	시장동향	• OTT 이용 증가 등 디지털 채널을 통한 접근성 확대
	경쟁동향	• 다문화 시장수요를 보이는 싱가포르의 문화적 특성 상 여러 문화 콘텐츠와의 경쟁이 불가피
	진출방안	• 현지 문화 및 종교 등 국가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지화 전략의 접근방식
품목명 4		
(교육) 에듀테크	선정사유	•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수업이 널리 활용되면서, e-learning에 대한 관심 증가
	시장동향	• 정부차원에서 유아교육부문에 대해 싱가포르 3대 장기이슈로 선정하며 예산을 확대하였음
	경쟁동향	• 특정과목에 한정하여 소규모 전문 학원 위주로 분산되어 있음
	진출방안	• 차별화된 교육 커리큘럼과 플랫폼 제공 • e-learning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접목한 맞춤형 교육 등 전략 수립 필요

첨부 3

'22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 한국-싱가포르 스마트 선박기자재 진출 지원 사업

- 한-싱 스마트 선박기자재 수출상담회 및 포럼
 - 시기/장소 : 2022년 9월 중 /싱가포르 Marina Bay Sands Convention
 - 품목 : 무인선박, 스마트선박용 통신기자재, 선박기자재 등
 - 주요 내용 : 조선해양기자재 바이어 유치 및 컨퍼런스 진행

■ 싱가포르 온·오프라인 유통망 활용 진출 지원

- B2C/B2B 온라인 유통망 입점 지원사업
 - 시기/장소 : 연중/싱가포르
 - 주요 내용 : 주요 B2C/B2B 유통 플랫폼* 내 한국상품 입점 및 마케팅 지원
* (B2C) Shopee, Lazada, Qoo10 / (B2B) Quube
- 한국 소비재(식품, 뷰티, 패션, 잡화 등) 온·오프라인 유통망 판촉전
 - 시기/장소 : 4분기/싱가포르
 - 주요 내용 : 싱가포르 주요 오프라인 유통 매장 내 판촉 부스 운영,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 내 디지털 마케팅툴(메인배너·라이브커머스 등) 활용 판촉 등

■ K-스타트업 투자유치 및 싱가포르 진출 지원

- 싱가포르 한-싱 스마트 그린뉴딜 지원사업
 - 시기/장소 : 2021년 상반기/싱가포르
 - 주요 내용 : 친환경 에너지스마트 모빌리티 등 그린 스타트업의 싱가포르 진출을 위한 1:1 멘토링, 현지 투자가정부기관기업 대상 피칭 진행 등
- 싱가포르 유력 VC 초청 투자유치 IR
 - 시기/장소 : 2021년 연중/싱가포르
 - 주요 내용 : 싱가포르 유력 VC의 對한국 스타트업 투자유치를 先발굴 → 관심 업종 및 투자 멘데이트에 적합한 국내 스타트업 발굴하여 투자유치 IR 진행

■ 우리나라 인재의 해외취업 지원

- 싱가포르 내 구직자를 위한 'KMOVE 싱가포르 취업박람회'
 - 시기/장소 : 2022년 상반기/싱가포르 Suntec Convention Center (잠정)
 - 주요 내용 : 싱가포르 내 구직자와 기업 간의 매칭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첨부 4 '22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전시회 캘린더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싱가포르 Budget 2022(예산안) 발표	2022. 2월	싱가포르 재정부(MOF)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2022 싱가포르 조선해양플랜트 전시회	2022. 3월	
2022 싱가포르 식품 및 음료 전시회(온라인)	2022. 3월	
2022 세계 도시 정상회의	2022. 4월	전시회

첨부 5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 인수방침

■ [한국무역보험공사] 싱가포르 국별 인수방침

신용장	무신용장
정상인수	정상인수

* 현 국별 인수방침은 '21.12.29일 기준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조사부 국별조사팀(02-399-7177) 또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https://www.ksure.or.kr:8443/research/content/contentViewD.do?brdUpperCode=A>)

■ 주요 용어 설명

용어	내용
정상인수	별도의 인수제한조치 없이 인수하는 것을 의미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	최선미	과장	싱가포르무역관	+65-6426-7205	smchoi@kotra.or.kr

I.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III. 진출전략

KOTRA자료 21-227

2022 싱가포르 진출전략

발 행 처 KOTRA

발 행 인 유정열

편 집 인 경제통상협력본부

발 행 일 2021년 12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06792)

전 화 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I S B N 979-11-402-0082-5 (95320)

Copyright © 2021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2022 싱가포르 진출전략

